

북한에도 베스트셀러가...

김정일 관련 저작, 당연한 베스트셀러
그러나 폭발적 반향 부른 책 따로
사랑받는 애정소설과 해외작들

서현미_ 월간 <통일한국> 객원기자

베스트셀러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당대를 산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에 감동받았으며 무엇에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사회를 이해, 공감하는 데 있어 베스트셀러만큼 좋은 것은 없다.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는 우리식의 '베스트셀러' 개념이 없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북한에도 소설이나 시 등을 남긴 사람들 못지않게 좋아하는 '독서광'들이 있다. 재미있는 책은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손으로 베껴 간직하기도 하는 인기 있는 북한식 베스트셀러가 많다.

북한 당국도 출판물을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간주하여 극심한 경제난에도 많은 양의 책들을 매년 출판, 권장하고 있다. '하루에 두 시간 이상, 1년에 1만 쪽 책읽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독후감 발표모임, 독보회 등을 통하여 책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청소년, 대학생들은 책의 내용이나 질에 상관없이 많은 책을 읽으며, 그만큼 독서열도 높다.

실제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심리묘사·교양소설 인기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새터민(탈북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조선문학> 등 북한 매체를 통해 많은 북한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을 정리해 북한식 베스트셀러를 선정했다. 북한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당연히 김정일, 혁명정책에 관한 서적이다. 특히 38권의 <김일성저작집>과 <김일성선집>(7권), <김정일선집>(11권) 같은 '노작'은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에 관하여>, <주체사상총서>, 문학작품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 등도 베스트셀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도

서는 북한의 최고 작가 집단인 4·15 문학창작단에서 집필된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 중 천세봉의 <은하수>, 현승걸·최학수의 <백두산 기슭>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꼽힐 만큼 잘 꾸며졌다고 한다.

하지만 혁명전통물이나 사회주의 건설물 등은 단조롭고 정치색이 짙어, 북한주민들이 실제 개별적으로 가장 즐겨 읽는 책은 문학소설이다. 아직까지도 인간의 고통이나 자유의식에 대한 예술적 성취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입각한 심리묘사와 함께 대체로 교양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인기 있는 대표적인 소설로는 김일성의 청소년 시절을 그린 <동트는 압록강>(월북작가 강효순 작) <7명의 시수들> <열망> <평양은 선언한다> <벗> <전환> <섬사람들> <나의 교단> 등이 있다.

북한에서도 인기 있는 문학작품을 영화나 TV드라마로 방영하는데 <탄부> <먼 길> <청춘송가> <열망> <컷기슭에서>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유명작가 중 가장 많은 단편을 남겨 '단편소설의 1인자'로 소개되는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은 북한 매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학소설 외에도 <갑오농민전쟁> <임격정> <바보온달전> <늙새바람> <양반전> <토끼전> <주몽> 등 역사소설도 선풍적 인기를 모으면서 최고의 인기작으로 떠올랐다.

애정 단편소설도 많이 읽어, '부르짖적 삼각관계 이야기 금물'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소설에는 남녀 애정문제를 다룬 중·단편 소설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당·정치·혁명 일색인 북한소설이 주 독자층인 청소년을 비롯한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자 사상성 교양강화의 한 수단으로 애정 장면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남한 기준으로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애정묘사 대목이지만 큰 반향을 얻었다. 대표적인 작품은 <청춘송가> <들장미> <이 나라

여인들》《나는 보고 있소》《거대한 날개》 등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체제에 대한 충성의 중요성을 정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작품 곳곳에서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얼굴에다 감성적이고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어 청소년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애정소설 가운데 남한에도 많이 알려진 남대현의 《청춘송가》는 1987년에 발표되어 유례 없는 사랑묘사로 북한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장편소설이다. 사랑이야기를 통하여 청춘남녀의 이상과 현실, 북한사회의 부조리까지 드러내 보여 북한 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러나 북한 문예작품에는 남녀간의 삼각관계로 설정한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삼각관계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적 문화 잔재로서 노동자 계급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기인한다. 일례로 김일성은 1967년 1월 천세봉의 소설 《안개 흐르는 새 언덕》을 각색한 예술영화 《내가 찾은 길》 첫 필름을 보고 “혁명가들은 아무 사람이나 망당되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며 삼각관계 사랑은 “실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늑거리 사랑(값싼사랑)이며, 부르주아 박애사랑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일제 때 나온 연애소설 《장항몽》(속칭 이수일과 심순애)에 비유하며 혹평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삼각관계는 혁명의 대상인 적대적 인물에 한해서나 허용되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작가동맹위원회에서 나오는 최근 작가들의 소설들은 잘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새터민들의 증언이다. 예전과 달리 애정문체나 관료제 비판 같은 내용도 담겨 있지만 이상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급속히 변화된 일반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소설도 선호... 독서광들 일반 유출 금지 '100부 도서' 범위

외국소설은 국내소설에 비해 남녀간의 사랑과 인간관계를 비교적 진솔하게 그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문학 작품 역시 선전선동 차원에서 소련과 중국 소설을 위주로 번역·출판되는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고리끼의 《어머니》《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등 혁명 고전소설들은 5, 60년대에 많이 읽혔고 지금까지도 계속 읽히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후 1989년 평양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열면서 북한청년들이 국제적인 기본양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김정일의 지시로 《돈키호테》《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테스》 등이 번역되었다.

'세계문학선집시리즈' 전집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고대 로마소설인 《스파르타쿠스》, 발자크의 《붉은 것과 흰 것》, 브론테의 《제인 에어》 같은 고전들이 널리 읽힌다. 특히 몇 해 전에 번역 출간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발자크의 소설에는 노골적인 성묘사가 많지만 전혀 삭제되지 않은 채 실려 있다는 점도 북한세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외국작품에는 책머리나 말미에 '평가'를 붙여 “이 작품에는 계급성

이 없다”는 등 독자들이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한편 문학과나 독서광들은 '100부 도서(100부만 찍는 책)'를 넘본다. 이 책들은 중앙당 고위간부나 문학인들의 참고용으로 '비밀도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에 유출되면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데카메론》《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이다.

'체제 비판 소지, 추리소설 금지'... 문학작품 중심으로 남북 교류 필요

현재 북한은 서구서적들의 소개와 함께 좀더 다양한 장르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일반주민들에게 추리·탐정소설의 독서를 금지하였다. 이런 책을 통해 사고력과 추리력을 길러 자칫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 있고, 체제에 대한 비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 추리소설 대부분은 인민보안성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등 수사기관의 '참고책'으로 책 뒷면에 '대내에 한함'이나 '대외에 나가지 말 것'이란 딱지가 붙은 '비공개 소설'이었다. 그러나 《셀룩홈즈 명탐정》, 러시아 첩보소설 《1941년의 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나날에》 등은 워낙 인기가 좋아 일반인도 읽게 되었다. 그 덕분인지 사상성과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만을 엄선해 게재하는 《조선문학》에서도 이례적으로 《이상한 목소리》라는 추리소설이 수록돼 북한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황석영의 《장길산》을 비롯해 남한 소설가들의 작품이 출간돼 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에서도 홍명희의 《임격정》, 홍석중의 《황진이》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북한사람들은 책이 없어서 못 읽고 남한사람들은 책이 너무 많아 게을리하는 것 같다”는 한 새터민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쌀, 비료와 같은 식량으로 북한동포를 도와주는 것과 함께 마음의 양식인 비정치적인 문학작품들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도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서로 교감, 공감할 수 있는 날들이 오길 바란다. **한민**